

심평원 이야기를 Mobile&PC로 만나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NS 채널 안내

네이버 블로그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할까?
나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는?
심평원의 다양한 업무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네이버 포스트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은?
중장년 필수 건강 상식은?
차별화된 시리즈 기획으로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이 증상은 도대체 무엇?
#미세먼지 사라져줄래?
심평원 소식과 건강정보가 담긴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카카오스토리
우리 아이 교정치료, 언제 시작할까?
봄나들이 추천 여행지는?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육아정보와
다채로운 문화소식을 공유합니다.

유튜브
심평원 TVCF, 분류체계 교육 영상,
의약품 안전 사용 안내, 서비스 안내.
심평원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여행지 사진을 보며 감성에 빠지고 싶을 때나
혹은 힐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SNS 채널 친구가 되어주세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January + February 01/02

Vol. 1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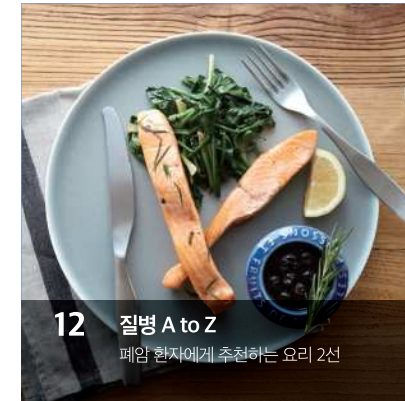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9 January + February 01/02 Vol.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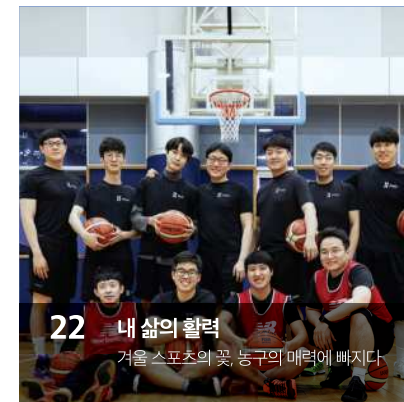
04 한눈에 보는 질병
국내 암 사망자 수 1위, 폐암



12 질병 A to Z
폐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요리 2선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22 내 삶의 활력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의 매력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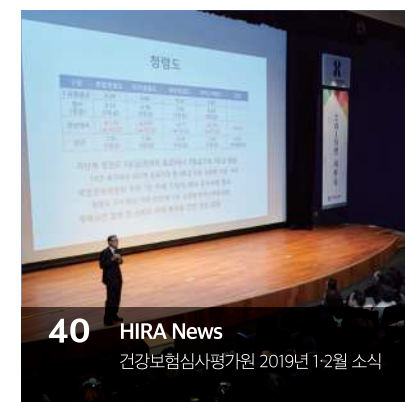
24 건강한 동행
울산대학교병원
신호환수거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34 그곳에 가면
대한민국 일출 1번지,
포항으로 떠난 새해 첫 여행



38 마음 연구소
리플리 증후군, 거짓이 만들어 내는 인물



40 HIRA New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1-2월 소식



46 의약계 안내사항
만성폐쇄성폐질환(4차)
적정성 평가 결과안내 등

2019 01/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드는 건강정보 전문지 Vol. 168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contents

건강한 이야기

- 04** 한눈에 보는 질병
국내 암 사망자 수 1위, 폐암
- 08** 질병 A to Z
폐암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 14** 병원평가정보
폐암 병원평가정보 알아보기

행복한 이야기

- 16** HIRA 톨아보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로 의료 질 향상
- 18** 우리 지역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22** 내 삶의 활력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의 매력에 빠지다
- 24** 건강한 동행
울산대학교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 28** 정책·이슈
2월부터 공팔,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30** 문화 산책
당신을 찾아든 겨울의 끝자락, 꿈같은 이야기
- 34** 그곳에 가면
대한민국 일출 1번지, 포항으로 떠난 새해 첫 여행
- 38** 마음 연구소
리폴리 증후군, 거짓이 만들어 내는 인물
- 40** HIRA NEWS
2019년 시무식 개최 외
- 42** 독자의 소리
서울시 서대문구 강상철 님 외

유익한 이야기

- 의약계 안내사항**
- 46** 만성폐쇄성폐질환(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 50** 2019년(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안내
- 52**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실시 안내
- 54**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안내
- 56**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 안내
- 5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팟캐스트 <오케바디>: <http://www.podbbang.com/ch/9584>
 심평TV: <http://hiratv.or.kr>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폐암 Lung Canc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발행일_ 2019년 2월 28일 통권_ 제168호 발행처_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_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_ 김승택 편집인_ 김형호
 기획 디자인_ 유니크플러스 인쇄_ 세원문화사
 고객센터_ 1644-2000 / 033-739-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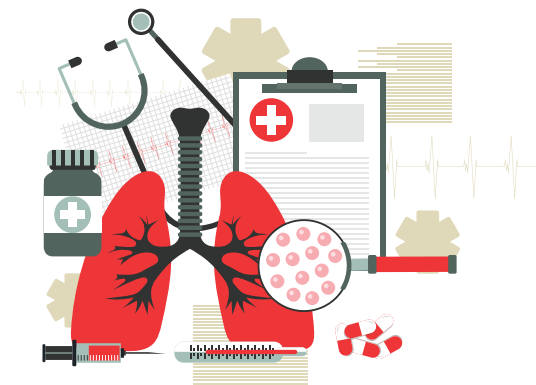
국내 암 사망자 수 1위 폐암

HIRA 보건 의료 빅데이터
국민 관심 질병 통계 (2017년)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국내 전체 암 중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요 암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 발견율 역시 낮았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폐암 관련 주요 통계를 좀 더 알아보자.

*주의 사항

본 통계는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용 중 진단명을 기준으로 통계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환자 수치와 다를 수 있음.



폐암(Lung Cancer)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原發性)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 와서 증식하는 전이성(轉移性) 폐암으로 나눌 수 있다.

L u n g C a n c 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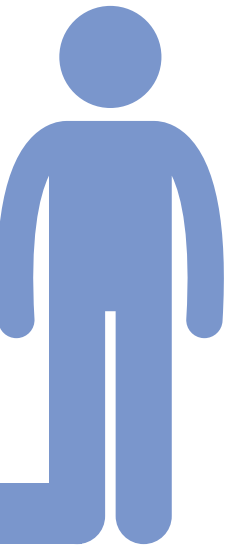
연도별 폐암 환자수 추이는? 꾸준히 증가 추세

2014년 7만 533명

2015년 7만 3,765명

2016년 7만 9,868명

2017년 8만 4,298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암을 앓고 있을까?
8만 4,298명

남성
5만 4,209명

여성
3만 89명



환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691만 2,916원



L u n g C a n c e r

환자 1인당 보험자부담금은 얼마인가?

638만 2,055원

폐암 환자의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은 **638만 2,054원**이며, 1인당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남성은 682만 5,585원, 여성은 558만 2,981원**이다.



남성 70대
2만 347명



여성 60대
9,455명

성별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70대, 여성 60대

성별 환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70대(2만 347명), 60대(1만 8,445명), 50대(8,157명)순이었고 **여성은 60대(9,455명), 70대(8,904명), 50대(6,541명)순**이었다.

성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 70대, 여성 60대

성별 연령구간별 내원일수는
남성은 70대(50만 4,487일), 60대(47만 3,669일), 50대(22만 806일) 순이었고
여성은 60대(20만 3,865일), 70대(19만 7,357일), 50대(17만 678일) 순이었다.



남성 70대
50만 4,48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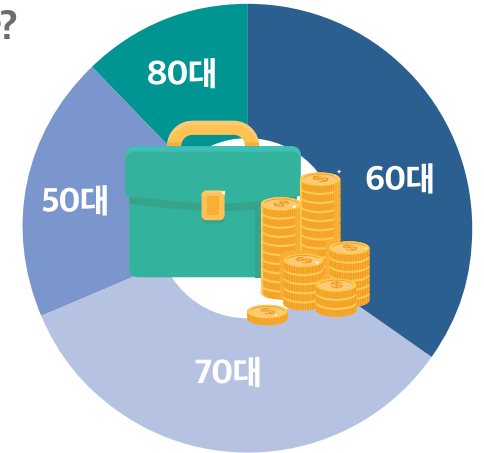
여성 60대
20만 3,865일

L u n g C a n c e r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높을까?

60대

60대	32.7 %
70대	31.8 %
50대	18.1 %
80대 이상	11.3 %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 그룹은 어디일까?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 등
1,326일



의원급
6만 9,297일



병원급
57만 2,43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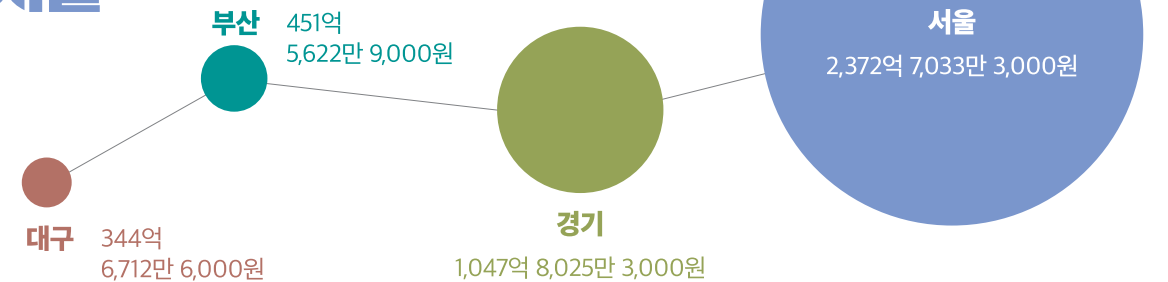
종합병원
57만 5,228일



상급종합병원
99만 9,481일

요양급여비용총액이
가장 많은 요양기관 소재지는?

서울



폐암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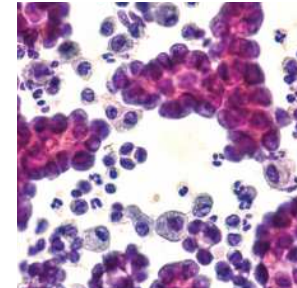
맞춤형 폐암 치료의 시대를 맞으며



L u n g C a n c e r

가장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폐암에 혁신적인 치료제가 도입됐다. 머지않아 폐암도 감기처럼 치료되는 날이 올 것 같다. 어쩌면 편의점에서 감기 증상별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듯, 폐암도 증상별 약을 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 폐암 관련 유전자 EGFR, ALK, PD-L 등의 유전자 변이에 따라 맞춤형 약물이 개발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폐암 종류에 따라 맞춤형 약물을 선택해 폐암을 정복할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폐암, 제대로 알아보자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폐는 혈관분포가 많고, 장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암도 전이되는데 이를 전이성 폐암이라고 한다. 폐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를 원발성 폐암 또는 줄여서 폐암이라고 한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된다. 폐암을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하는 것은 임상적 경과와 병기를 구분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비소세포폐암은 약 80~85%로 가장 흔하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 외과적 절제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조직 형태에 따라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 형태와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소세포폐암은 대부분 진단 당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행과 전이도 잘되지만,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잘 반응하고, 재발률도 높다.

폐암은 왜 발생할까?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이다. 담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흡연 습관과 피우는 양, 흡입 정도, 기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진다.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다. 간접흡연 역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건축 자재(예전의 슬레이트 지붕 등), 저밀도 단열재, 전기 절연재, 방화재 등에 사용되는 석면도 폐암 유발 요인 중 하나다. 이외도 유리규산 분진, 비소, 베릴륨,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과 콜타르 피치,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검댕 같은 화학물질 등도 원인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cokes) 생산, 주물업, 도장공 등이 직업이라면 폐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것들만 피하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방사성물질 역시 폐암의 원인인데, 이는 우리 주변에 어디든 있



단순 X-선촬영에서 폐결절로 발견되기도 한다.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날 수도 있다. 후두신경에 침범하면 쉼 목소리가 나오고, 식도를 침범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 흉막 가까이 폐암이 발생하면 흉통이 생길 수 있다.

폐암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

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병이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기를 차례. 치료가 어려운 폐암도 올바른 예방 습관을 몸에 익히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 무조건 금연한다

담배를 피지 않는 것만으로도 90%의 폐암 예방이 가능하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다. 또 금연하는 동안 늘 결심 동기를 기억한다. 흡연 욕구를 대체할 운동, 놀이, 산책 등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금연 중 흡연하게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금연을 이어나가야 한다.

다. 특히 자연 방사성 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라듐이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흔히 방사성물질로 떠올리는 단순 X-선 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방사선량은 미미해 폐암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세먼지' 속 디젤 연소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도 원인이다. 폐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폐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진다.

폐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 폐암이 발병해도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도 기침과 객담 또는 단순한 식욕부진, 발열, 무기력증 등의 증상만 보여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폐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쌉쌉거리는 숨소리 등의 주된 증상은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 종양이 자라 기관지를 막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선암은 건강검진 흉부



- 미세먼지, 방사성물질 등을 피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은 삼간다. 어쩔 수 없는 외출이라면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온 뒤 비누 등으로 몸을 깨끗이 씻는다. 외출 시 입은 옷은 바로 빨고, 세탁이 어려운 외투 등은 먼지를 잘 털어 보관한다.

-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열에 약하다. 이런 암의 특성을 이용한 온열 치료도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온도를 높이면 암세포 사멸이 촉진되고, 면역세포 기능은 강화된다.

- 폐암 예방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폐암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결론은 단순하다. 균형 잡힌 음식을 잘 먹으면 된다. 균형의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미량영양소가 폐암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단 채식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다양한 음식을 입맛에 맞게 먹는 편이 좋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당근, 고추, 시금치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 해조류 등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는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피해야 할 영양보조제는 베타카로텐, 레티놀, 루테인, 비타민 E 등으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폐암에 취약한 계층이라면 반드시 조기검진 한다

55~74세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자, 폐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폐암 발생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폐암 발생 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폐암은 암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난치병이다(전체 암 발생의 4위·암 사망률 1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2017).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폐암의 가장 주요 원인인 흡연율이 여전히 높다. 흡연은 몸속을 매일 미세먼지 나뭇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담배를 끊어 폐암이 예방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난치병이라고 생각되는 폐암도 극복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요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요리 2선

어떤 음식을 먹는지보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 음식은 암을 이기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블루베리 소스를 올린 연어 스테이크

재료

연어 2조각, 소금 한 자밤, 후추 약간, 시금치 1/2단,
로즈메리, 올리브유 2큰술, 레몬

소스

블루베리 1/2컵, 포도 주스 1컵, 버터 1큰술,
머스터드 1/2작은술, 소금 약간

요리법

- ① 손질한 시금치를 반으로 자르고 올리브유 1큰술을 두른 팬에 살짝 볶고 소금, 후추로 간한다.
- ② 연어는 소금, 후추를 뿌려두었다가 올리브유 1큰술을 두른 팬에 굽는다.
- ③ 소스 팬에 포도 주스를 넣고 반으로 조린 후 블루베리와 버터, 머스터드를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든다.
- ④ 그릇에 시금치를 깔고 연어와 소스를 올린다.
- ⑤ 레몬 한 조각과 로즈메리를 올린다.

간편하게 만드는 콜라비 샐러드

재료

콜라비 1/2개, 사과 1/2개, 붉은 양파 1/2개, 당근 1/2개,
파슬리 적당량

드레싱

식초, 레몬즙 2큰술씩, 올리브유 3큰술,
디종 머스터드 1작은술, 설탕 1/3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요리법

- ① 콜라비와 당근은 가늘게 채 썰고
- ② 붉은 양파와 사과는 도톰하게 채 썬다.
- ③ 볼에 드레싱 재료를 모두 넣어 섞는다.
- ④ 큰 볼에 콜라비와 당근, 양파와 사과를 모두 넣고 드레싱을 뿌린 뒤, 살살 버무려 10분 정도 재운다.
- ⑤ 그릇에 담고 파슬리를 올린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건강 식재료

배, 사과: Phloretin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

토마토: Lycopene이 있다. 이 성분은 암 성장을 억제하고 진행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다.

블루베리, 붉은 양파, 사과, 콜라비: 이들 식재료에는 항산화 물질 Quercetin이 있어 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Anthocyanidin, Dephinidin 등이 항암효과를 보인다.

당근: 당근에 함유된 Chlorogenic Acid는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연어: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돼 있다. 폐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굴: 미네랄, 아연이 다량 포함돼 있다. 영양이 풍부하고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타목세)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포도 주스: Resveratrol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생강: 항암제 투여 후 구역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강에 포함된 6-Shogaol은 항암 효과가 있다. 또한 만성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상과 같은 음식에 대한 항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다. 체계화된 대규모 대조군 임상시험으로 증명되지도 않았다. 다만 음식의 일부 성분에 대한 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재료다. 근거는 미약하지만 암을 앓는 환자에게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있다.



폐암

병원평가정보 알아보기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이며, 각종 유해환경 및 흡연 등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암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폐암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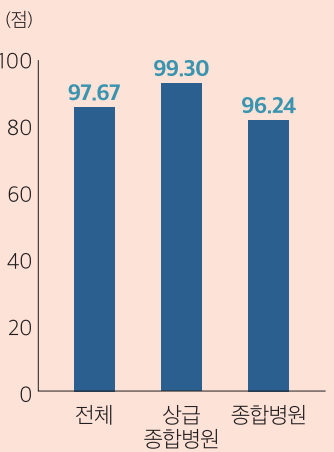
폐암 4차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했나요?
대상 기간	2016년 1월~12월(1년)
대상 기관	폐암 관련 진료비를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
대상 환자	원발성 폐암 1~4기로 진단받아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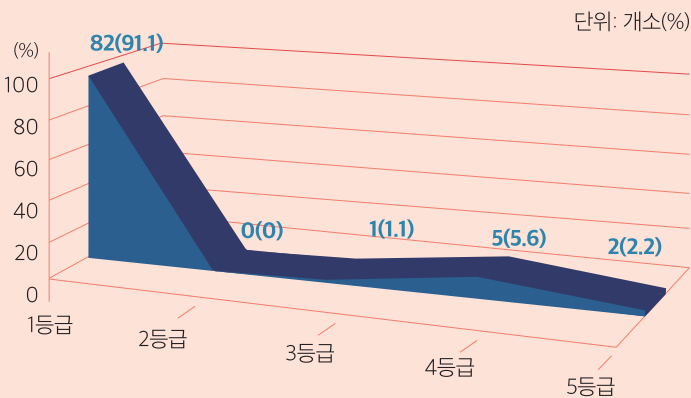
평가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했나요?
	폐암 진료의 구조, 과정, 결과 부문으로 평가합니다.
	1. (구조부문) 폐암 치료 대응력을 보기 위한 병원의 전문인력 구성 여부
	2. (과정부문)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전신요법(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3. (결과부문) 폐암 수술로 입원 진료 받은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평가결과는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5점 간격, 5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며,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폐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입니다.
단,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됩니다.

종합점수 중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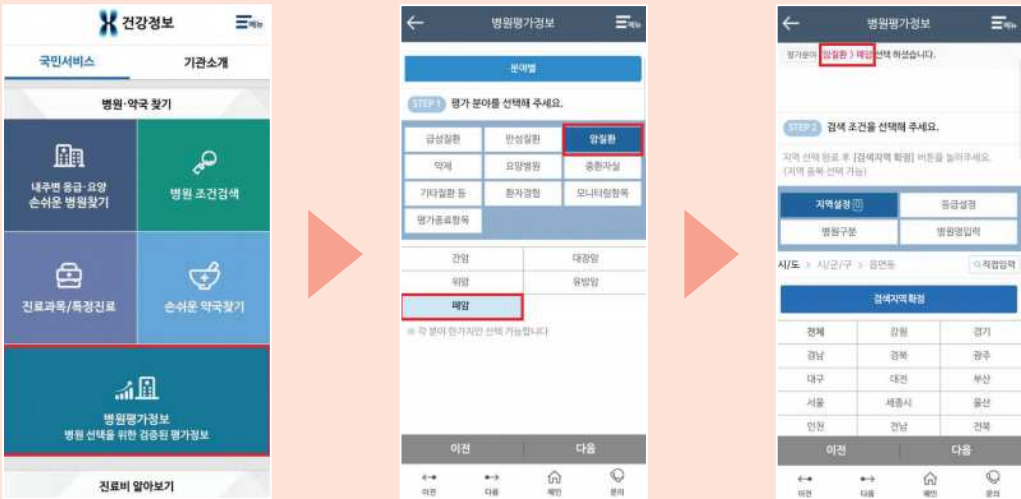
평가등급별 현황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등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폐암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로 의료 질 향상 의료 질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로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의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영역을 평가

**12개 분야
35개 항목 평가**

외과 중심에서 치과 영역까지,
성인질환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임상효과에서 환자 경험·안전
중심으로 평가영역 지속 확대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액
(가산 또는 감산) 적용

**의료 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적정성 평가 결과가
높은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낮은 의료기관은
디스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



의료서비스 평가에 따른
질 향상 사례

의료 질 향상 효과

구분	2002년	2017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	73.3%	39.7%
주사제처방률 감소	38.6%	16.5%



국민이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공개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정보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병원평가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

**다양한 요양기관 대상
질 향상 프로그램**

결과 통보 및 개별 교육 / QI 교육(집합 교육)
QI 컨설팅 / QI 커뮤니티 / QI 우수사례 선정·포상



평가 절차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진행**

평가 대상 선정 및 예비 평가 ▶
연간 평가 계획 수립 ▶
항목별 세부 계획 수립·공개 ▶
평가 수행 ▶ 평가 결과 산출 및 활용 ▶
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HIRA 톨아보기

*'톨아보다'는 순우리말로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톨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꿈꾼다



서울특별시 1,00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우직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서울지원 직원들의
새해 각오는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리만큼 후끈하다.
2019년 의료계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 만큼
시민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최적의 과정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팔을
견어붙였다. 기해년 출발선에 선
서울지원 직원들의 다짐을 기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살아있는 의료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지난 2000년 7월 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평원) 서울지원은 인구 1,000만 명의 도시, 서울특별시민
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년 세월을 묵묵히 달려왔다. 서울
은 우리나라 인구 20%가 몰려있는 만큼 의료 및 관련 기
관 또한 많다. 서울시 소재 2만 2,000여 개 기관을 관할하
는 서울지원 160여 명의 직원이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는
이유다. 특히 서울지원의 신조인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직원들 역시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의료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
고자 현장 중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서울시 의약
단체와의 간담회는 물론이고, 각 구(區) 의사회와도 적정진
료율 자율개선 및 의약단체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 중재 활
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시 5개 의약단체장과 25개 구(區) 의사회장
을 방문해 서울지원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애
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공감대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 지원장은 “심평원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동반자이자 협력적 관계에 있다”라며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함께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심평원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역할이 의료서비스 확인에 그치지 않
고,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동반자의 애로사항
을 듣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김 지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원 직원들은 자주 의
료 관계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
구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는 작은 본원으로 거듭날 것

우리나라 수도를 담당하는 서울지원의 걸음걸이는 10개
지원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원에서 시행하는
행정 및 사업의 상당수가 곧 선도적 행보로 인식되는 셈이
다. 지난해 서울지원의 관내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의 요



양급여비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 결정 진료비는 무려 1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항상 그렇듯 해당 과정에 있어 의료 기관과 환자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지원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심사 결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지원은 전체 지원들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한편 주요 현안 및 우수사례 공유, 개선사항 건의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특히 불순물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태,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를 조기에 대처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 지원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지원이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지원은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진료비확인서비스, DUR서비스, 병원평가정보 등)를 알리고 있다. 김 지원장은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활



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높은 건강증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지원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내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30여 명이 소속된 서울지원의 탁구동호회 ‘심쿵심풍’ 회원들은 점심 혹은 휴식 시간을 활용해 업무로 경직된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요가동호회는 서울지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지원은 올해 심사수용성 제고와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전문심사와 의료계 현장 소통·협력 강화로 자율적 중재 활동을 유도하고 적정 진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선별집중심사 심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전문가 협업을 통한 심사수용성 제고 및 요양기관 진료행태개선 유도에 중점을 맞춰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도시, 서울특별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지원의 새해 첫 발자국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Mini Interview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청렴하고 따뜻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서울지원은 물론 심평원 직원 모두가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심평원과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 (왼쪽)

‘신사옥 이전,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UP’

심사시스템 개발과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하려면 그에 맞는 심사시스템 개발 및 보완이 필수입니다. 최근 서울지원은 신사옥 이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완벽한 이전으로 서울지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성기영 서울지원 고객지원부 과장 (오른쪽)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 국민건강증진의 전제조건’

병·의원급 요양기관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양기관과의 전화통화가 주요한 업무일 정도로 의료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데요. 매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대리 (오른쪽)

‘폐기만만 막내, 서울지원의 활력소가 되고파’

제 담당 업무는 본인일부부담금 관련 착오 청구, 자진 환수요청건 등 요양기관 측에서 착오로 청구한 부분을 정산해주는 ‘사후정산’입니다. 올해도 더 발전하는 서울지원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박수진 심사평가1부 주임 (왼쪽)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의 매력에 빠지다

‘Jump HIRA’의 농구예찬론

날씨와 상관없이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농구는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에 딱 맞는 운동이다. 농구를 즐기며 흠뻑 땀 흘리고 나면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샘솟곤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구 동호회 ‘Jump HIRA’ 회원들이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를 확인해본다.

좋은 시설·장비 구축, 자부심은 덤

겨울은 운동하기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계절은 아니다. 하지만 40여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심평원의 농구동호회 ‘Jump HIRA(이하 점프 히라)’에게는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조율하는 포인트가드(PG)를 맡은 동호회의 감초이자 에이스, 총무부 김현수 주임은 “아마추어 동호회 중 자체 경기장을 보유한 동호회는 드물 것이다”라며 “종종 지역 내 다른 농구팀과 초청 경기를 하는데, 우리원의 시설 및 장비와 다양한 동호회 지원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점프 히라의 오늘 상대는 원주에서 손꼽히는 강호다. 팀의 주득점원으로 인정받는 DUR정보부 이정봉 대리는 “지난 경기 때 아쉽게 져서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득점 사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시 후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지난 아쉬운 패배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선수들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분위기는 뜨거웠다. 점프 히라가 한발 앞서면 상대 팀이 뒤를 바짝 쫓는 형국이었다. 프로선수들의 플레이가 떠오를 만큼 멋진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양측 벤치에서 탄성이 터졌다. 후끈한 열기만큼 선수들의 유니폼도 금세 땀으로 젖어 들었다. 추운 날씨가 무색할 정도였다. 전·후반 20분의 경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결과는 아쉽게도 점프 히라의 패배. 한 곳 차이였다. 하지만 치열했던 경기와 달리 종료 후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였다. 함께 땀 흘린 동료에 대한 예의,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새로운 회원과 함께 농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훌륭한 시설, 뛰어난 선수 등 모든 게 충분한 점프 히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바로 신입 회원이다. 김현수 주임은 “많은 신입 사원이 가입해 농구를 통해 서로 알아가

고 평소 업무로 인해 신경 쓰기 힘든 건강도 챙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 특성상 여직원이 남직원보다 많은데 아무래도 농구가 격렬한 스포츠라는 인식 때문인지 점프 히라 내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다”라며 “농구는 여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므로 많은 여직원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점프 히라에 가입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물론 초보자를 위해 맞춤형 교습까지 제공한다.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이라는 신체 변화는 덤이다. 경영정보부 김재욱 대리는 “기존 회원들 모두 성심을 다해 신입회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겨울철 농구를 즐기기 어려운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실내 농구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훌륭한 농구코트를 갖춘 점프 히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주 지역의 수많은 농구 동호회가 바라마지 않는 농구의 성지, 점프 히라의 문은 심평원 직원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대학교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본격 시동

올해부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의료기관 중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을 찾아 병원 현황과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들었다.



지역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울산대학교병원

1975년 문을 연 울산대학교병원은 현재 960병상으로 350여 명의 의사를 포함해 2,5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연간 2,300건의 암 수술과 장기이식, 심·뇌질환 및 중증외상 등 고난도 수술과 치료를 시행하며, 울산, 경주, 포항 지역 200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했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 지역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 암센터, 국가임원치료병상,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해 울산 지역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금년부터 울산 지역 최초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정용기 울산대학교병원장은 “현대의료는 의사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자신만의 치료비법이 아닌 집단지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진료 기준이라는 인식이 정착됐다”라고 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병원은 표준화된 진료시스템에 기반한 적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진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지불하게 돼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나 소비자인 환자 모두가 만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직접 방문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고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들었다.

Q.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셨나요?

A. 환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외부 홍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로부터 신포괄수가제가 소신 진료를 보장하고 적정진료를 한층 더 강화한 제도라는 내부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가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 후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데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도 초기 코딩작업부터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과 사용자 입장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에 힘썼습니다.



Q.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준비하는 병원에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A. 울산대학교병원은 국내 다른 대형병원과 달리 의료정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핵심은 기존의 행위별수가 시스템을 포괄수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울산대병원은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진료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울산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준비 중인 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준비 과정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Q. 울산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A.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진료는 그대로 받으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체감할 만큼 경감됐기 때문이죠.



Q. 신포괄수가제가 자리 잡기 위해 의사와 환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비가 줄어든 만큼 과소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사들은 소신 진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포괄수가제는 표준 진료 메커니즘에 환자 상태나 치료 과정상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서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두 제도의 장점을 조화한 제도입니다. 우리 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중증 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이르는 다양한 질환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협업, 빠른 제도 정착 기대

정 병원장은 신포괄수가제가 무리 없이 안정적인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 선행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주선,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방문교육 등 심평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보상수준과 질병군 간 수가 수준이 잘 반영되도록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고가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가모형을 지금보다 단순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병원 내부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울산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이라는 명성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준 병원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 병원들과 협력하면서 적합한 지불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해 27개 병원 준비에 이어 금년도 37개 병원이 새롭게 선정돼 많은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가 병원시스템도 개선시키고, 비급여 부담도 많이 줄여 국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란?

-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
- 국민이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도 상당 부분 보험 적용이 돼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 신포괄수가제는 '09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559개 질병군 대상 6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 중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 예고했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및 의심환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보험 적용 전
평균 **5~15만 원**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만 6,900원	7만 7,200원	9만 6,500원	13만 9,1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 (30~60%)	2만 6,300원	3만 2,900원	4만 2,800원	5만 3,400원
	입원(20%)	1만 7,500원	1만 6,400원	1만 7,100원	1만 7,800원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2019년 환자부담금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만 6,300원	7만 9,200원	10만 5,800원	15만 5,0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 (30~60%)	2만 3,600원	2만 9,500원	3만 8,400원	4만 8,000원
	입원(20%)	1만 5,700원	1만 4,700원	1만 5,300원	1만 6,000원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2019년 환자부담금

반복 촬영의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당신을 찾아든 겨울의 끝자락 꿈같은 이야기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하지만 완전한 봄이 되기까지는 ‘고통’의 계절이다.
언 땅 위로 새싹을 밀어내고자 씨앗은 겨우내 찬 기운을 여린 제 몸으로 이겨내야 하고
땅 속에서 막 깨어난 새싹은 약한 몸매 에너지 보충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식물뿐이 아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긴 ‘끝’과 ‘시작’이라는 말이 품은 상처와 싱그러움.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겨울의 끝자락을 이야기한다.

영화 토크

늦겨울을 닮은 사랑과 꿈 이야기를 만나보실래요?



수줍고 서툴기에 더욱 시린 사랑을 마주하다

아사코 I & II

드라마 | 120분 | 12세 관람가 | 3월 개봉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아사코는 오사카에서 열린 한 사진전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바쿠’에게 반한다. 첫눈에 반한 둘은 연애를 시작한다. 아사코에게 첫사랑인 바쿠와의 모든 시간은 특별하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자유분방한 바쿠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아사코 곁을 떠난다. 2년 뒤. 도쿄로 거처를 옮긴 아사코 앞에 바쿠와 똑 닮은 외모의 ‘료헤이’가 나타난다. 인연은 두 사람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게 한다. 아사코는 료헤이와의 관계를 주저하다, 3.11 동일본대지진이 있던 날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자유분방한 바쿠와 달리 자상한 료헤이에게 점점 빠져들고 결혼까지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쿠. 그는 료헤이와 만나는 아사코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는 주저 없이 바쿠를 따라간다. 하지만 결국 료헤이에게 돌아온 그녀. 더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3.11 지진이 사람들 가슴에 남긴 아물지 않는 생채기처럼, 어쩌면 복귀되지 않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안은 채 살아가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늦겨울 감성 지수



천진한 소년의 꿈을 만나다

코코(COCO)

애니메이션, 모험 | 127분 | 전체 관람가

감독: 리 언크리치

멕시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사는 소녀 미구엘. 소녀는 뮤지션을 꿈꾸지만, 음악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했던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의 반감으로 반대에 부딪힌다. 그럴수록 음악에 대한 열정은 커져간다. 결국 가족들 몰래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려 들리고, 화가 난 할머니는 미구엘의 기타를 부순다. 경연을 포기할 수 없던 미구엘은 정황상 고조할아버지일 것으로 확인하는 최고 가수 에르네스토 델라쿠르즈의 기념관에 전시된 기타를 잠시 빌리려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떨어진다. 미구엘은 그곳에서 가족에게 들던 선조들의 영혼을 만나고, 죽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기왕이면 고조할아버지이자 최고 뮤지션이었던 델라쿠르즈의 영혼에게 축복받고 싶은 미구엘. 그를 찾아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의문의 남자 헥터. 미구엘은 그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숨겨졌던 진실과 여러 사건을 마주한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가 미지의 세계에 떨어져 우여곡절 끝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한 뼘 더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오랜 여운을 남긴다.

늦겨울 감성 지수



연극특독

겨울의 끝자락, 연극 관람과 대학로 산책 어때요?



따뜻한 연애 감성을 마중하다

옥탑방 고양이

대학로 틴틴홀 Open Run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김유리 작가의 동명 인터넷 소설 (2001)이 원작이다. 2003년 MBC 드라마로 제작돼 높은 시청률로 큰 화제가 됐으며, 2010년 연극으로 만들어져 아직까지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작가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시골 여자 정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축학도 서울 남자 경민. 아무 인연 없는 두 사람은 종로구 창신동의 한 옥탑방에서 조우한다. 알고 보니 자신이 살기로 한 옥탑방이 이중계약된 것.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은 연락 두절. 옥신각신 옥탑방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시적인 주소 공유 관계를 선택한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수상한 동거 그리고 두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하는 옥탑방.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옥탑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며 어울린다. ‘옥탑방’은 작고 낡았지만 함께 꾸꾸게 만드는 공간인 것. 탄탄한 스토리에 무대만이만 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의 세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연애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늦겨울 감성 지수



사람은 누구나 어른인 동시에 어린이이다

어른동생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Open Run

‘어른’과 ‘아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오싹하고 슬프며 또 재밌으면서도 기이한 이야기로 한국 아동문학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송미경 작가의 동화 <어떤 아이가>를 원작으로 하는 웰메이드 가족 뮤지컬. 한국출판문화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탄탄한 동화를 원작으로, 2017년 초연 이후 전 연령층의 동심을 자극하며 현재까지 오픈런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열두 살 여자아이 ‘하루’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다섯 살짜리 남동생 ‘미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새코미 사달라고 졸라 대고, 기차놀이 하는 척해야 해. 귀찮아 죽겠다, 귀여운 척하기도…” 누군가와 너무나 어른스러운 말투로, 어린애인 척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미루. 기차놀이와 새코미를 좋아하는 귀여운 동생의 낯선 모습에 하루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하루의 동생 미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공연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웃고, ‘어른’처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늦겨울 감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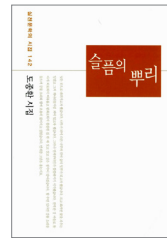


너를 만나서 행복했고
너를 만나서 고동스러웠다
마음이 떠나버린 욕심을 끌어안고

뒤척이던 밤이면
머리맡에서 툭툭 꽃잎이
지는 소리가 들렸다

백목련 지고 난 뒤
자목련 피는 뜰에서
다시 자목련 지는 날을
생각하는 건 고동스러웠다
...(후략)...

도종환, <슬픔의 뿌리>
(실천문학사), 자목련 속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가려진 희망을 엿보다

슬픔의 뿌리

도종환 저 실천문학사 펴냄

도종환 시인의 작품에는 웬만한 영혼들이라면 하나라도 버거운 가난과 아내의 죽음, 험난했던 교육 운동 등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그가 노래하는 시의 발원은 삶의 ‘고통과 슬픔’이고, 그의 시가 지향하는 대안은 ‘온전한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생이다. 시집 <슬픔의 뿌리>는 사랑과 연민, 자기 반성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삶이 치러야 하는 근원적 쓸쓸함을 노래한다. 그럼에도 시집은 겨울을 버티고 자기 생에 대한 가려진 새봄의 희망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늦겨울 감성 지수



도서특독

봄으로 가는 길목, 시를 좋아하세요?



겨울 향기를 닮은 깊은 서정의 세계를 만나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저 비채 펴냄

정호승 시인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시를 엮은 시선집. 표제작인 ‘수선화에게’를 비롯해 ‘미안하다’, ‘운 주사에서’, ‘꽃 지는 저녁’ 등 대표작 101편에 단아하고 서정적인 여성을 화폭에 옮겨온 박항률 화백의 그림 50점이 더해졌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한, 삶의 외로움과 깨달음이 맞물린 시선집은 지나치기 쉬운 겨울의 향기와 깊고 고요한 서정의 세계를 선사한다.

홀리 마와
외로움내가 사랑이다
살아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외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와
눈이 외편 눈길을 걸어가
비가 외편 빛길을 걸어가라
...(후략)...

정호승, <수선화에게>
(비채), 수선화에게 속에서

늦겨울 감성 지수



대한민국 일출 1번지 포항으로 떠난 새해 첫 여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 바로 포항 호미곶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명의 김 대리가 새해를 맞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일출 1번지' 포항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포항에서 두 김 대리가 만끽한 '한겨울의 여행'을 기록한다.

새해 기념 해맞이 '일단 떠나고 보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직장과 집을 오가는 직장인의 삶은 때로 서글프다. 더구나 '육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맘'의 마음은 오죽할까. 매일 출근해 모니터를 보며 씨름하는 김윤미 대리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애데렐라' 김성아 대리의 평일 여행은 우리 시대 많은 직장인의 로망일 터다. (*애데렐라: 육아를 위해 퇴근 시간이면 사라지는 '직장판 신데렐라'를 가리키는 신조어) 서울역에서 기차에 탑승한 시간은 정확히 새벽 6시 정각. 이른 새벽에 출발하느라 피곤할 만도 하지만 단짝끼리 나선 첫나들이에 들뜬 모양인지 금세 수다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서울

졌는데, 이에 놀란 사람들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다시 밝아졌다는 삼국유사 설화를 바탕으로 건립한 공원이다. 청량한 바다와 그 너머에 우뚝 솟은 공장지대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묘한 풍광을 끼고 만들어진 공원은 30~40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 볼 수 있을 만큼 아담하다. 두 사람 역시 가벼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풍경을 만끽했다.

처음은 언제나 특별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남다른 이유다. 대한민국의 일출 1번지에서 두 김 대리는 새해 소망을 빌었다.



에서 포항까지의 거리는 무려 340km로 국토를 종단하는 수준이다. 평소 선뜻 포항여행을 결정하기 힘든 이유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선택한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 20분이면 충분하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미리 예약한 단기 렌터카를 포항역에서 타고 호미곶에 도착하자 '상생의 손'이 두 사람을 반겼다. 화합과 화해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하는 상생의 손은 바다와 육지에 각각 하나씩 세워져 있다. 한참 동안 상생의 손을 응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0여 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포항의 떠오르는 산책 명소,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이었다. 이곳은 신라시대에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후 해와 달이 사라

포항 진미의 진수를 맛보다

포항의 랜드마크를 정복했으니 이제 포항의 맛을 찾아 떠날 시간.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명물, '과메기'다. 포항시는 지역 대표 명물을 테마로 한 '구룡포과메기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에는 과메기의 기원부터 덕장 재현, 향토음식 소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3층 규모의 과메기문화관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소다.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까지 갖춰져 있다.

과메기 공부를 마치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그 유명한 '죽도시장'이다. 포항의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 도착하자 사방에서 날아드는

구수한 사투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외지 손님을 반겨주는 상인들의 환한 미소는 한겨울 여행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두 사람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이미 죽도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이른바 '칼제비골목'에 위치한 음식점이었다. 칼국수와 수제비가 반씩 섞인 칼제비는 죽도시장의 명물로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음식이다. 거기에 전형적인 '시장표 떡볶이'와 통통한 순대, 즉석에서 말아낸 김밥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멸치를 우려낸 칼제비 국물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큼 훌륭했다. 국내 경제 발전의 주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포항은 여전히 공업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편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이다. 그래서인지 선뜻 여행을 떠나기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포항은 '관광도시'다. 두 김 대리가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호미곶, 과메기문화관, 죽도시장과 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들 외에도 12개의 폭포를 품고 있는 내연산, 천년 사찰 보경사,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장기읍성 등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가 가득하다. 아직도 포항으로의 여행이 망설여지는가? 직장인의 로망, 화려한 일출 혹은 두 김 대리의 포항여행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Mini Interview



김성아 대리

‘가장 특별한 동료와 추억을 만들고 싶어’

김윤미 대리와 저는 서로 힘이 되는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지만 저는 육아에, 김윤미 대리는 바쁜 업무에 치여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던 와중에 기회를 주셔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성아 대리 (포괄수가운영부)

김윤미 대리

‘포항 진미에 몸도 마음도 사르르’

사실 김성아 대리의 강압에 못 이겨 여행에 나섰습니다. 포항까지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막상 여행에 나서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놀랐고, 수려한 관광명소와 맛깔스러운 포항 향토음식에 또 놀랐습니다.

김윤미 대리 (수탁사업부)

포항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 해맞이광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호미곶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일출명소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매년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화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상생의 손’은 호미곶의 대표 명물로 바다와 육지에 각각 오른손과 왼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054-270-5855



포항의 맛이 한 곳에 ‘죽도시장’

죽도시장은 부지면적 약 14만 8,760㎡, 점포 수 약 1,200개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200여 개의 횡집에서는 동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칼제비를 비롯한 각종 먹거리가 즐비한 소위 ‘먹자골목’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가리지 않고 늘 기분 좋은 북적임으로 가득하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3길 13-1



과메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지난 2016년 문을 연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은 지역의 대표적 힐링 먹거리인 과메기의 체계적인 연구, 품질관리 및 홍보를 위해 건립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과메기문화관은 연구센터, 홍보관, 해양관은 물론 각종 체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 054-270-2861



지역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포항특미물회’

지역 주민들이 극찬하는 물회 전문점. 허름한 내·외관과 달리 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훌륭한 ‘맛의 반전’이 놀라울 따름이다. 포항특미물회라는 상호대로 전복, 해삼, 각종 생선 등을 듬뿍 넣은 물회가 대표 메뉴다. 아낌없이 썰어 넣은 신선한 해산물과 이까지 얼얼할 만큼 시원하고 얼큰한 육수는 한겨울 추위조차 잊어버릴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 106 / 054-246-1490

리플리 증후군,

Ripley Syndrome

거짓이 만들어 내는 인물

리플리 증후군이란?

거짓말을 반복하다 자신이 실제 그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흔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은 정신과에서 통용되는 진단명은 아니다.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이다. 몇 년 후 이 소설을 기초로 제작한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주인공은 부자인 친구를 살해하고 그 사람으로 행세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그 부자인 양 행동하게 된다. 이 영화가 발표된 후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다니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게 됐다. 그런데 영화 속 리플리는 타인 행세를 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자 친구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을 실제 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잊지 않는다. 본래 신분을 감추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현실에서도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타인으로 사는 시간이 길수록 들통날 확률 역시 올라간다. 하지만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다. 그러니 계속 속일 수밖에 없다. 진짜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건딜 수 없는 고통이다.

리플리 증후군 vs 과대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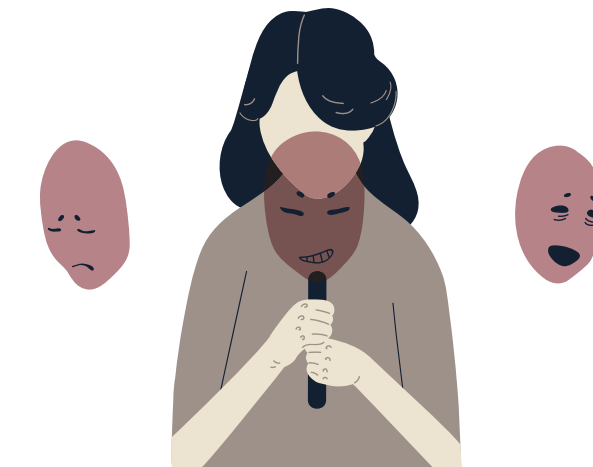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유명대학에 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졸업장도 위조한다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본래 신분을 감추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실제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진심으로 믿

얼마 전까지 시청률을 고공 행진하며 수많은 이슈를 낳고 종방한 드라마 <SKY 캐슬>의 주인공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드라마에서 리플리 증후군은 성과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부산물로 나온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재조명한다.

는 경우는 과대망상이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에 합격했다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짓으로 인지한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다 같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임을 알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바꾸지 못한다. 이 경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태도도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나 사회에 절망하다 자살이나 자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다.

리플리 증후군 vs 사기 범죄

타인의 신분을 위장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범죄로 이어진다. 범죄인을 보면 신분 사기를 벌이는 이는 신분 사기만 계속한다. 이들은 인생 자체가 연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즐겨워한다. 이들 중 일부는 사람을 봐 가며 여러 신분을 사용한다. 그런데 자신을 다른 신분으로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언젠가 들통나게 마련이다. 사기꾼들이 흔히 VIP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그들은 사기행위가 끝나면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벌을 받기 전까지는 죄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다.

리플리 증후군과 우리 사회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부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능력이 모자라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이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도달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사칭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지만 자신보다 잘나지 않은 이가 부모를 잘 만나거나, 운이 좋거나, 줄을 잘 서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신분을 사칭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현실에서 과시할 것이 없으면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과시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거짓의 자신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다 보면 현실의 자신은 방치되고 거짓인 자신과 실제 자신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 거짓인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인 자신이 현실의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자기 과시나 자기 도취는 자기 위로에 도움이 된다. 괴로운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심리적 통증을 줄여주는 마음의 진통제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자기기만이 되면 현실감을 무디게 한다. 따라서 너무 높은 이상은 살짝 낮추고 최선을 다해 현실을 높여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HIRA News



2019년 시무식 개최(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2일, 본원 대강당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승택 원장은 임직원들의 업무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2019년에도 변화와 도전, 소통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선진화, 의료보장성 강화, 안전한 의료서비스 구축 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무식 이후에는 전 직원이 떡국을 함께 나눠 먹으며 기해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취임(1.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6일, 본원 대강당에서 업무상임이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1985년 심사평가원에 입사해 약제관리실장, 부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업무상임이사는 향후 2년간 심사기획실 등 10개 부서를 관장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새 경영 슬로건 선포(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8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 경영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공표하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발간 소식을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새 경영 슬로건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메시지로 경영방침을 담아내는 한편,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1·2월 뉴스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 실습 교육(1.21.~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 대상을 기존 1개 대학에서 3개 대학으로 확대해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강릉원주대 재학생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참여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산업체는 자사 제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 대학생은 빅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심사평가원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산·학·관 모두 상생하는 기회가 됐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방문(2.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5일,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Dr. Myint Htwe)을 맞아 올해 미얀마에서 개최될 의료비 심사 관련 워크숍에 심사평가원 전문가를 초청하는 문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미얀마 보건 체육부 장관은 김승택 원장에게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향후 미얀마도 심사평가원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미얀마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문정주 감사 취임(2.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8일, 본원 대강당에서 문정주 감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신임 문 감사는 연천군 보건의원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석연구원, 서울대 의학과 겸임 교수,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문 감사는 향후 2년간 감사직을 수행한다.

LETTER 독자의 편지

얼마 전에 누나가 결핵에 걸려 약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결핵에 걸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핵에 대한 기사를 읽으니 생각이 확 바뀌더군요. 결핵에 대해 무지한 저 자신을 반성했고, 알찬 정보를 얻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강상철 님 -

'호스피스 -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봉사활동'. 웰빙만큼 웰다잉도 중요하며, 필연적인 삶의 과정에서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풍경은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본받아 실행하면 참 좋을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제주도 제주시 허은경 님 -

'게으른 나에서 부지런한 나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감정문제를 해결하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싫어하는 상사에 대한 분노 조절이라던가, 불안을 일으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치료를 받으라는 방법 제시가 크게 다가오네요. 살맛이 난다는 것도 부지런한 내가 되는 것도 결국 건강한 마음과 체력을 갖춰야 하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 서울시 중랑구 이미연 님 -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8년도 11·12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강상철, 강옥재, 권문선, 김선경, 김연주, 김윤정, 김현호, 김효식, 민순기, 박숙희, 서미화, 송성배, 신은성, 이귀숙, 이미연, 이유민, 이정희, 전혜민, 한경이, 허은경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들에게 도서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독자 엽서' 또는 '웹진(hirasabo.or.kr)' >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의료이용을 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진료비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급여'와 '비급여'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 인터넷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스마트폰
「건강정보」 모바일 앱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접수
상급종합병원 본원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
종합병원 이하 의료 기관 소재지 관할 10개 지원

처리 절차

진료비 확인 요청(진료비 영수증 첨부) →
해당 의료기관 자료 요청 → 자료 확인 심사 →
확인 결과 안내(의료기관, 확인 요청자) → 환불금 지급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전에 대상 여부, 민원 사례,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 비중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자가 점검





심평원 이야기를 Mobile&PC로 만나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NS 채널 안내



네이버 블로그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할까?
내게 필요한 건강정보는?
심평원의 다양한 업무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유튜브

심평원 TVCF, 분류체계 교육 영상,
의약품 안전 사용 안내, 서비스 안내.
심평원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은?
중장년 필수 건강 상식은?
차별화된 시리즈기획으로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이 증상은 도대체 무엇?
#미세먼지 사라져줄래?
심평원 소식과 건강정보가 담긴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카카오톡

우리 아이 교정치료, 언제 시작할까?
봄나들이 추천 여행지는?
엄마아빠에게 꼭 필요한 육아정보와
다채로운 문화소식을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

여행지 사진을 보며 감성에 빠지고 싶을 때나
혹은 힐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SNS 채널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약계 안내사항

각 요양기관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46
2019년(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안내	50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실시 안내	52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안내	54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 안내	5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58

만성폐쇄성폐질환(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1. 평가 배경 및 목적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평가 기준

평가 대상

대상 기간	· 2017.5. - 2018.4. (외래 진료분)
대상 기관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대상 환자	평가 대상 기간 중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 COPD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와 COPD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평가 지표

영역	지표명
평가 지표(3)	검사 지표 1. 폐기능검사 시행률
	치료지속성 지표 2. 지속방문 환자비율
	처방 지표 3.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모니터링 지표(3)	결과 지표 4.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지표 5.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청구행태 지표 6.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3. 평가 결과

- 주요 평가 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입니다.
-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71.4%로 3차 평가보다 3.5%p,
1차 평가보다는 12.7%p 향상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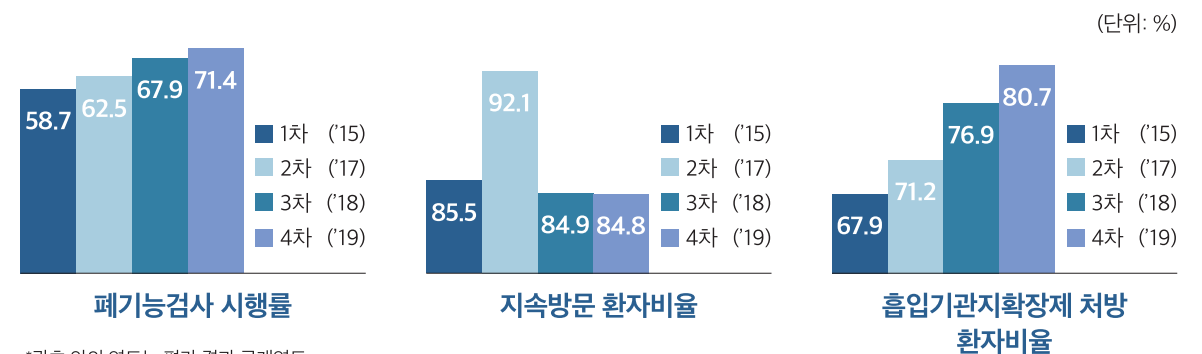
폐기능검사 시행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가 필수적이며,
초기진단 이후에는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약제 선택 등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동일한 기관을 방문한 환자비율을 평가하는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84.8%로, 대부분 환자가 1개의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속방문 환자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폐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4차 평가 결과 80.7%로 3차 평가보다 3.8%p, 1차 평가보다 12.8%p 향상됐습니다.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요법은 증상이 악화되는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켜
건강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기도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시 흡입기관지확장제가 우선 권고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연도는 평가 결과 공개연도

4. 평가 결과 공개 및 향후 계획

- 1,3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했습니다.
* (기준) 연간 평가대상환자수가 10명 이상이고 3개 평가지표의 결과가 모두 산출된 기관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만성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 1등급 기관은 371개 기관으로 3차 평가 대비 32기관 증가, 4~5등급은 351기관으로 3차 평가보다 106기관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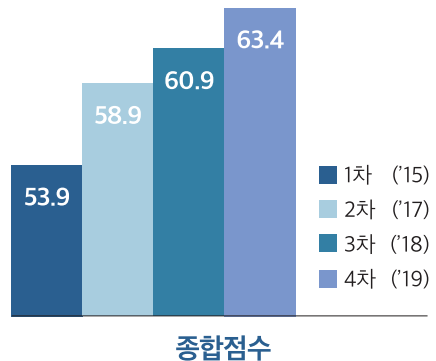
차수별 등급현황

(단위: 개소)

영역	1차 ('15)	2차 ('17)	3차 ('18)	4차 ('19)
1등급	205	296	339	371
2등급	313	342	341	348
3등급	348	349	302	298
4등급	323	250	236	164
5등급	357	262	221	187

* 괄호 안의 연도는 평가 결과 공개연도

- 종합점수는 4차 평가 결과 평균 63.4점으로 3차 평가 비교 2.5점 상승해 1차 평가보다 9.5점 상승했습니다.



*괄호 안의 연도는 평가 결과 공개연도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년 상반기에 전국 개원의협회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19년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학회와 함께 '폐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정부, 전문 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원본파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 리플릿 게시 위치

- 게시 위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대한약사회(<http://www.kpanet.or.kr>)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http://www.lungkorea.org>)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http://www.allergy.or.kr>)
 - 흡연제로네트워크(<http://www.tobacco-free.or.kr>)
 - (사)소비자권익포럼(<http://www.kcrf2017.org>)

2019년(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안내

1. 평가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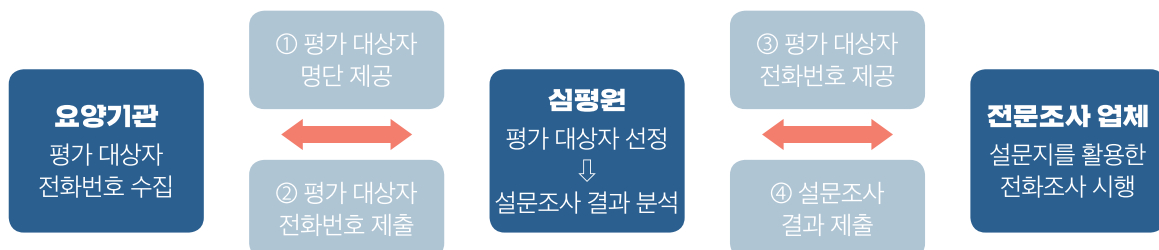
- 환자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질을 평가합니다.
- 2017년 첫 평가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과 의료 환경 전반에서 대인적 측면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평가 대상

대상 환자	·1일 이상 의과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퇴원 후 2일~56일(8주) 사이에 있는 환자 ('19년 5월 이후 청구자료 기반) * 제외 대상: 낮병동·완화병동·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9.1월 말 기준) * 제외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대상 병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군병원
조사 내용 (설문지)	·입원 중 환자가 경험한 의사/간호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조사 기간	·2019년 5월~11월 중 전화조사 시행(약 6개월 소요)

3. 평가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입원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에게 전화조사 실시(전문조사 업체 위탁)
- 전체(조사 대상자) 및 요양기관의 환자경험 문항별·영역별 점수 산출
- 문항별 점수는 선형화 방식 적용



4. 평가 일정

2019년 1월
2019년(2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 추진계획 공개

2019년 2월
요양기관 대상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 개최

2019년 5~11월
환자경험 평가
전화조사 실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 평가 정보 > 분야별 > 환자경험)

5. 평가 도구(설문지)

구분	평가 영역	번호	문항 내용	비고
인원경험	1. 간호사 영역	1	존중/예의	4점 척도
		2	경청	
		3	병원생활 설명	
		4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2. 의사 영역	5	존중/예의	
		6	경청	
		7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8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3. 투약 및 치료과정	9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2점 척도
		10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11	통증 조절 노력	
		12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13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4. 병원환경	14	깨끗한 환경	4점 척도
		15	안전한 환경	
	5. 환자권리보장	16	공정한 대우	
		17	불만 제기의 용이성	
		18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19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6. 전반적 평가	20	입원경험 종합 평가	11점 척도
		21	타인 추천 여부	
	개인 특성	22	입원경로(응급실 경유 여부)	보정 변수 검토
		23	주관적 건강수준	
		24	교육수준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실시 안내

1. 평가 배경

- 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적절한 인력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2014년 첫 평가 결과 중별·기관별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차를 확인하였고, 2017년 2차 평가에서 인력·장비·진료 부문에서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의료서비스의 기관 간 편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함
- 중환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대상 기간	2019년 5월~7월(3개월)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환자	만 18세 이상,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제외대상: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2. 평가 자료 수집 및 평가 방법

- 요양기관이 웹 기반 'E-평가 자료제출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 조사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현황 신고 자료 및 인력 차등제 현황 통보서 활용
- 평가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를 부여 후 가중치를 정하여 기관별로 종합점수를 산출
 - 인력(전담전문의, 간호사), 장비 및 시설지표는 표준화 점수 구간 사전 공지 (1, 2차 평가와 동일 구간을 유지하여 지표별 평가 결과 예측 가능)

3. 평가 기준(평가 지표): 총 14개 지표

- 전반적인 평가 기준은 유지하며 일부 지표의 세부 기준 등 개선·보완

구분	지표명	변경 내용*
평가 지표 (7)	구조(4)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 반일 전담전문의 0.4 → 0.5명으로 변경
		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 일부 프로토콜 명칭 변경 - 기계 환기 전반에 대한 프로토콜 (구. 저환기 요법 프로토콜)
	과정(2)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 실제로 유용한 중증도 평가도구(SAPS3 or APACHE III 이상)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을 권장
모니터링 지표 (7)	결과(1)	7.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구조(2)	8.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
		9.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
	과정(1)	10. 감염 관련 Bundle 수행 여부 · 평가 지표 세부 기준 중 Sepsis bundle 삭제
		11. 중환자실 사망률
	결과(4)	12.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 KONIS 감염 기준(2018년) 적용
		13.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14.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 KONIS 감염 기준(2018년) 적용

*2차 평가 대비 변경임

4. 향후 일정

2019년 3월 요양기관 대상 평가 설명회	2019년 11월 평가 자료 구축 및 조사표 수집	2020년 2월 신뢰도 점검 및 평가 결과 분석	2020년 8월 3차 평가 결과 공개(예정)
--------------------------------------	--	---	---------------------------------------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결과 공개, 요양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 제공

※ 평가 일정 추진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알림>공지사항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평가알림방(구 요양포털)>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안내

1. 개요 및 목적

-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를 적정 관리하고자 2014년 9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반기별 총 8회차 지급되었습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요양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상한금액: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금액

2. 산출방법 및 결과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한 경우 기관별 지급률(10~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기간의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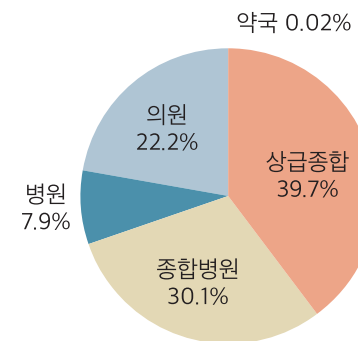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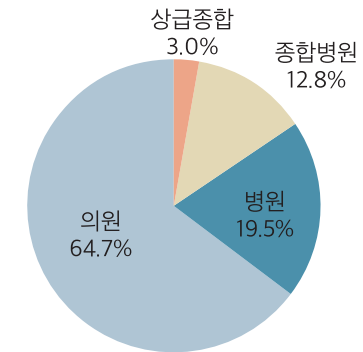
(단위: 기관, %, 억 원)

구분	처방조제 장려금(A+B)					사용량감소(A)				저가구매(B)			
	기관수		장려금		평균 (만 원)	기관수		장려금		기관수		장려금	
전체	6,762	(100)	476	(100)	704	5,901	(100)	140	(100)	1,346	(100)	336	(100)
상급종합	42	(0.6)	189	(39.7)	45,050	12	(0.2)	4	(3.0)	42	(3.1)	185	(55.1)
종합병원	214	(3.2)	143	(30.1)	6,702	133	(2.3)	18	(12.8)	163	(12.1)	125	(37.4)
병원	706	(10.4)	38	(7.9)	536	612	(10.4)	27	(19.5)	267	(19.8)	11	(3.1)
의원	5,789	(85.6)	105	(22.2)	182	5,144	(87.2)	91	(64.7)	863	(64.1)	15	(4.3)
약국	11	(0.2)	0.1	(0.02)	104	-	-	-	-	11	(0.8)	0.1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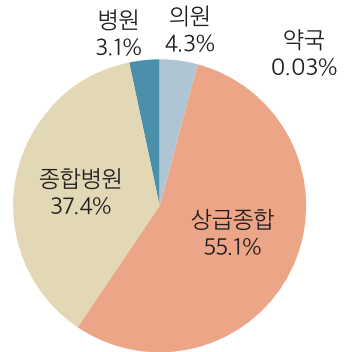
[처방·조제 장려금] (A+B)



[사용량감소 장려금] (A)



[저가구매 장려금] (B)



- 산출 대상: '18년 1~6월(3개월 심사결정 포함) 진료한 후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입니다. (총 46,073기관, 약품비 65,582억 원)
- 처방·조제 장려금은 6,762기관에 476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5,901기관에 140억 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346기관에 336억 원입니다
-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기관 189억 원(39.7%), 종합병원 214기관, 143억 원(30.1%), 병원 706기관, 38억 원(7.9%), 의원 5,789기관, 105억 원(22.2%), 약국 11기관, 1,000만 원(0.02%)입니다.

3. 향후 계획

- 9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 '19. 7월 말
- '18년 하반기(7~12월) 진료분(비교 대상: '17년 하반기)

산출결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
(<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 안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관련된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보안기능 검사 배경

국민의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기능 검사 기준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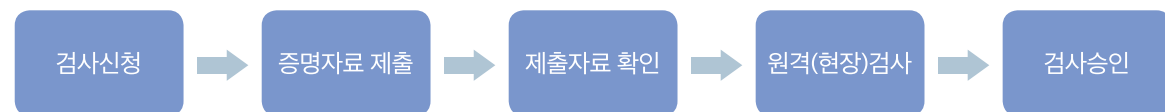
* 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41호, '18.7.12.)

보안기능 검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실시한 검사입니다.

검사항목은 총 18항목이고, '19년 8월 1일부터 보안기능을 인증받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에 반송됩니다.

보안기능 검사 절차



· 상용SW 업체, 자체개발 요양기관: 우리원으로 직접 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안기능 검사 관련 유의사항

- '19년 8월 1일부터 보안기능 검사·인증을 받지 않은 승인번호로 청구하시거나, 청구소프트웨어 승인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는 반송됩니다.
- 상용SW를 사용하시는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어 사용하시는 청구SW의 인증 및 승인번호 배포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현황 조회방법

· 자체개발

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 검사신청관리 →
승인번호조회(우측 화면)

일자	승인연료일자	보안기능	결과통보서
0-01	2019-07-31	미인증	결과통보서
8-27	2021-08-27	인증	결과통보서
8-27	2021-08-27	인증	결과통보서
8-24	2021-08-24	인증	결과통보서
8-24	2021-08-24	미인증	결과통보서
8-24	2021-08-24	미인증	결과통보서

· 상용SW

요양기관업무포털 →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인증 →
커뮤니티 → 심사청구SW
조회 → 승인내역

순번	소프트웨어명	업체명	종류
1			의용
2			의용
3			의용
4			의용

업체명	승인내역	분류	제출일자	인증가능	부정가능	보안기능
1				적	적	인증중
2				적	적	인증중
3				적	적	인증중
4				적	적	인증중
5				적	적	인증중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인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주1)}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업간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제도화 추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간 통합 추진으로 만성질환의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1)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14.),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7.11.~'18.12.1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07.~)

2. 시범사업 기간

- 2019년 1월 14일 ~ 1년간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 대상

- **대상기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 **대상환자:**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4.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문진, 신체측정, 임상검사 등으로 환자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 계획 수립

환자관리

환자의 혈압·혈당을 확인 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약물복용, 합병증 발생 유무, 생활습관개선에 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 질환 관리 및 진료예약관리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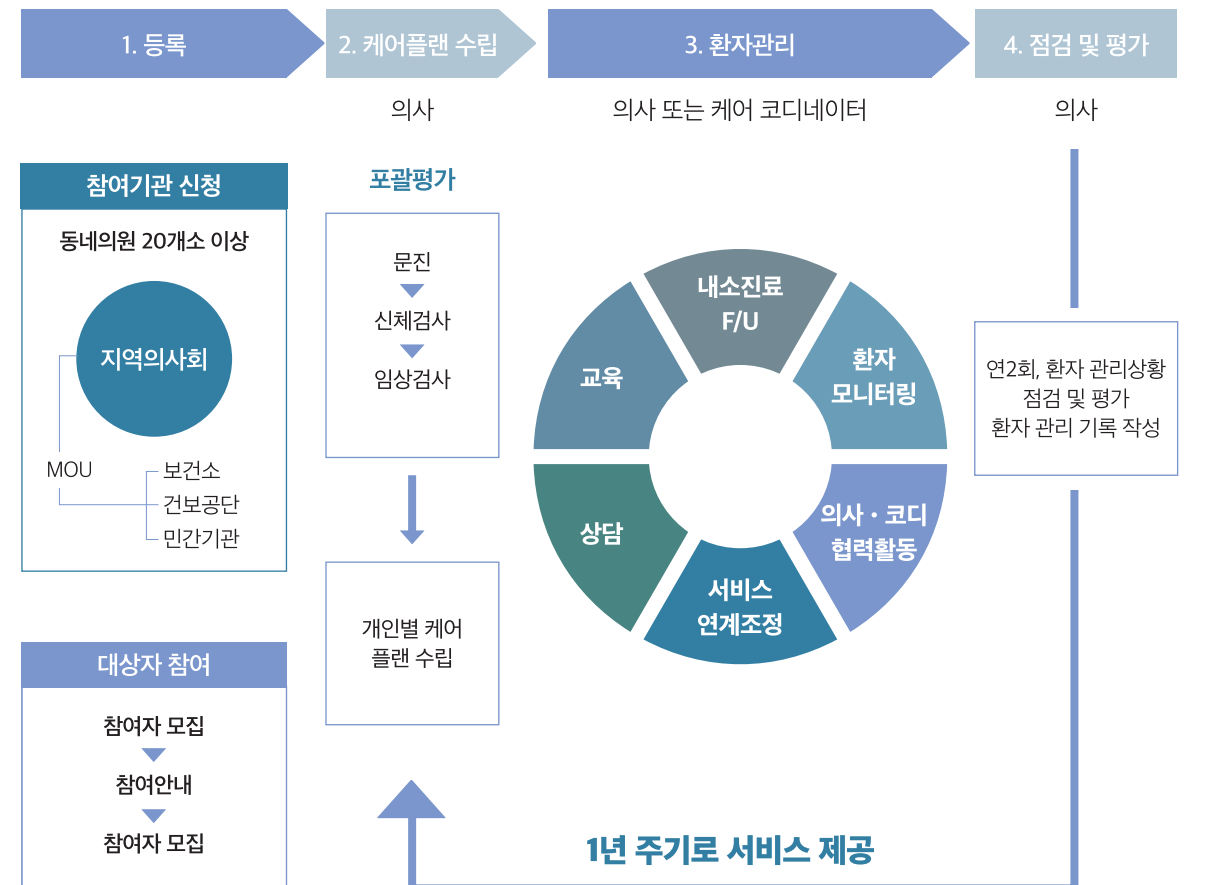
교육·상담

질병이해도 향상 및 자가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점검 및 평가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 점검·평가 후 그 결과를 제공

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여방법

-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 정보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http://hi.nhis.or.kr>) 접속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내원
 - 진료담당의사에게 상담하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시범사업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나,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범사업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예) 건강보험가입자는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을 연간 최대 22,980원(1주기 참여, 점검 및 평가 2회 실시, 1대1 교육·상담 및 기본교육·상담 최대 8회 기준)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이외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문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용 및 지침 관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02-3782-7607, 7612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3594~6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및 청구방법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53~4, 1561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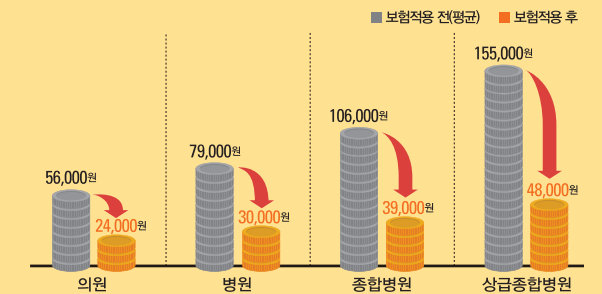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 신장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의료비부담 경감효과

- 환자 부담은 평균 6~16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콩팥·부신·방광 초음파 외래 기준)



<http://medicare1.nhis.or.kr> 에서 더 자세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확인하세요.